동국대, 역대급 교육·학생복지 인프라 개선

3월 4일 새 학기 맞아 시설 라운딩
방학 동안 40억원 투자…개선 공사
마음 쉼터, 네오스페이스 새로 조성
돈관스님 "교육 인프라 개선에 최선"
오는 9월엔 로터스관 착공식 '기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는 3월 4일 이사장 돈관 스님, 윤재웅 총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학내 개선 연구 교육 시설을 점검하는 라운딩을 진행했다. 사진은 경영관 지하 1층에 새로 조성된 복합라운지에서 이용 학생과 인사를 나누는 돈관 스님과 윤재웅 총장.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교육·연구 및 학생 복지 인프라에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동국대는 3월 4일 2025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개선 학내 시설들을 둘러보고 점검하는 라운딩을 진행했다. 이날 라운딩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윤재웅 동국대 총장, 정각원장 제정 스님, 지정학 법인 사무처장, 김용현 교무부총장 등 학내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동국대는 지난 겨울방학 기간 동안 약 4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교육·연구 및 학생 복지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라운딩에서는 다향관, 학림관, 경영관 등의 등 신설 및 개선 시설들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교육 및 학습 인프라 개선으로는 최첨단 AI-SW 교육 및 학습 공간인 '네오스페이스(Neo Space)'가 새로 구축돼 눈길을 끌었다. 다향관 1층에 자리한 '네오스페이스'는 약 480㎡(145평)의 공간에 167석 규모의 컴퓨터 실습실과 그룹 스터디 및 학습을 위한 3개소의 세미나실, 1개소의 라운지를 갖췄다.

또한, 신공학관 노후 승강기와 경영관, 사회과학관 등 5개 건물의 강의실 및 학생 공간 냉난방 시설을 교체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학습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문을 닫은 경영관 지하 1층 학생식당이 복합라운지로 새롭게 탈바꿈해 학생 복지 인프라를 조성한 것도 이번 사업의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개선 사업을 통해 경영관 지하1층에는 300석 규모의 학생식당과 카페, 편의점이 들어섰다. 이에 따라 지난 4년 동안 학생식당 등 편의시설이 없어서 불편함을 호소했던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및 예술대학 학생들은 일반 카페와 견주어 손색이 없는 분위기와 시설을 갖춘 학생식당을 이용하게 돼 그간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노후화됐던 학림관 앞 휴게공간은 '학림관 마음쉼터'로 새롭게 변모하여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태어났다.

김도현(동국대 경영정보학과 3학년) 씨는 "경영관 근처에는 사용할 식당이 없어서 멀리 떨어진 다른 건물에 가서 식사를 하곤 했다. 이번에 새로 복합라운지가 조성되며 경영관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돼 이동하며 버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돼 학업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 환경 개선으로는 만해관 4층에 석좌교수 공용라운지를 구축했으며, 신임교원들을 위한 공간 확충과 환경 개선을 지원해 교원들이 교육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동국대 교원, 교직원,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깨끗하고 편안한 공간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어 왔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학내 시설이 많은 부분 개선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학교가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모든 동국가족이 그 혜택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재웅 총장은 "이사장스님의 원력과 중대한 결심으로 학교의 숙원사업인 로터스관 착공식을 오는 9월 개최할 예정이다. 로터스관 건립에 매진하여 동국대가 최고의 교육, 연구 및 복지환경을 갖춘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대부여중·고, '가람'으로 교명 변경

3월 5일 교명 현판식 개최해
돈관스님 "자부심 갖길" 당부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여자중·고등학교가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가람중·고등학교(이하 가람중·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여자중·고등학교는 3월 4일 교명 현판 제막식을 개최하고 '가람중·고등학교'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사진〉

이날 제막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지정학 법인사무처장, 김규환 법인총무부장, 민보경 가람고 교장, 백계순 가람고 교감, 박현정 가람중 교장, 김선홍 가람중 교감 등 법인 및 학교 주요 관계자들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신환 국민의힘 광진을 당협위원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이날 치사를 통해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을 이야기하며, 95주년을 맞은 가람중·고등학교가 새로 탄생하는 날이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스님은 "큰 강을 의미하는 새 교명 '가람'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나누고 자비를 베푼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학교의 95년 역사를 새롭게 이어가는 오늘을 기억하고, 불법승 삼보와 함께 가람 속의 동국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개교 95주년을 맞은 가람중·고등학교는 2024년 4월 제355회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승인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제357회 이사회에서 동대부여중·고의 교명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을 의결한 바 있다. 신중일 기자

"조국 위해 장삼 휘날린 비구니스님의 독립운동사"

비구니회·승가연구소, 2월 28일
다큐 뮤지컬 '비·스·독' 시사회
진우 스님 "헌신 널리 알려지길"



약 1시간 30분 동안 펼쳐진 공연에서는 각 장면마다 선명한 역사적 순간이 그려졌다.

장삼 차림의 배우들이 천천히 무대에 올라 한 사람씩 이야기의 문을 연다. 때로는 절제된 몸짓으로, 때로는 힘 있는 노래로 그려지는 장면들. 그것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비구니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다.

2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다큐 뮤지컬 '비구니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비·스·독)'의 첫 무대가 올랐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가 주최하고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소장 심원 스님)가 주관한 이번 공연은 독립을 위해 헌신한 비구니스님들의 숨겨진 활동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풀어졌다. 제작은 뮤지컬 극단 야성이 맡았다.

1막에서는 국채보상운동이 한창이던 시기, 한 푼 두 푼 모아 조국을 위해 바쳤던 옥수동 미타사 40여 명의 비구니스님. 유관순 열사와 친구로, 3·1 만세운동에 활약했던 보각 스님. 독립운동가들의 자금 조달과 연락책을 맡아 항일운동을 지원하고, 안창호 선생의 옥바라지를 했던 옥봉 스님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2막은 제주불교의 중흥과 독립운동에 힘쓴 봉려관 스님의 이야기로 시작됐다. 관음사와 항일운동 발상지인 법정사를 창건하고, 독립자금을 대주는 등 독립을 향한 스님의 강한 의지와 역동성이 표현됐다. 스님의 상좌였던 성해 스님은 은사스님 곁에서 묵묵히 독립활동을 지원하며 끊임없는 정진으로 깊은 여운을 남겼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불교계 인사들의 배후에서 조력자 역할을 했던 상근 스님의 활동을 끝으로 공연은 마무리됐다.

공연 후 열린 시사회에서는 뮤지컬 제작 과정과 공연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비구니스님들의 독립운동은 단순한 항일투쟁이 아니라 불교의 자비와 깨달음의 정신이 깃든 숭고한 실천이었다"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부끄럽지 않은 불자로 그리고 한 국민으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역사 없이 지금의 우리는 있을 수 없다. 올해는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105년이 되는 해로, 3·1절 연휴를 맞아 뮤지컬을 보고 역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봉은사, 봉축 선포…부처님오신날 행사 시작

2월 28일 봉축 선포식 개최
원명스님 "燈 의미 되새기자"

"지금부터 불기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은사 사부대중 모두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길 기원하며, 부처님오신날 봉은사 봉축행사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서울 강남 봉은사는 2월 28일 경내 대웅전 특설무대에서 '불기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봉축 행사에 들어갔다.〈사진〉

봉축선포식은 사찰 내 봉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등 모연 독려와 등 달기를 통한 연등 공양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지 원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오신날이 멀리 있어 보이지만, 금방 다가온다. 우리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등을 밝히는 것은 마음의 지혜를 밝히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세상을 밝게 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연등 공양의 의미를 강조했다.

원명 스님의 봉축 선포문 낭독 이후 봉은사 대중스님들은 소원지를 작성해 등에 달았다. 국장스님들은 신도들이 작성한 소원지를 직접 등에 달아주며 가내 평안도 기원했다.

한편, 선포식에 앞서 봉은사 길놀이 풍물단은 법왕루 아래에서 경내 앞마당까지 풍악을 올리며 길놀이를 해 흥을 돋웠다. 신중일 기자

삼학설행사, 티베트불교 수행자 과정 온라인 개강

오는 3월 16일까지 강좌 접수
불교 기초논리학 강의도 개설

티베트 불교의 사상과 철학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강좌가 개강한다.

티베트 불교 삼학설행사(주지 텐진 남카 스님)는 "오는 3월 20일부터 '불교수행자 양성 교육과정 온라인 코스'를 처음으로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삼학설행사가 개설한 온라인 강좌 '날란다 코스'는 총 4학년으로 구성됐으며, 람림(보리도차제), 불교철학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강의가 진행된다.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교과별로 매주 금요일 강의가 업로드 된다. 또한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에는 강사인 텐진 남카 스님과 질의응답이 온라인 줌(zoom)으로 진행된다.

학년제 코스와 함께 3월 22일에는 불교 기초 논리학 강좌가 개강한다. 해당 강좌에서는 티베트 불교 논리학의 핵심인 '뒤다'를 통해 기초 논리학을 배울 수 있다.

텐진 남카 스님은 "모쪼록 이전의 다겁생 동안 쌓은 선연들이 더욱 의미 있게 되고, 또 현생에 좋은 습기를 심어 내생에 더 나은 삶이 되며, 더 나아가 해탈과 성불의 길로 갈 수 있게 정진하시길 바란다"며 "이 교육과정이 그러한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강희망자는 3월 16일까지 문자(02-358-4221/010-3264-4221)로 문의하거나 네이버 폼(https://naver.me/Gip3eMzO)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중일 기자

보리수 아래, 월정사 순례 참가자 모집

4월 12~13일, 버스킹 공연 모집도

보리수아래가 장애인의날과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4월 12~13일 개최하는 '2025년 월정사 산사순례' 참가자와 버스킹 공연자를 모집한다.

이번 순례는 혼자 여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불교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월정사 현지 버스킹 공연을 통해 불교계에 장애인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지원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천 옥천사 주지이자 조계종 교육아사리 무진 스님을 지도법사로 월정사와 상원사 순례, 자연 명상마을 명상체험, 숲길 걷기, 버스킹 공연 등이 진행된다. 특히 4월 12일 월정사 경내에서 열리는 버스킹 공연에서는 장애시인, 발달장애피아니스트 등 장애인불자예술인과 비텐스 범준 스님, 불자 음악인들이 함께 공연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장애인 10명, 비장애인 11명 총 21명이며 모집기한은 3월 15일 선착순 마감한다. 참가비는 5만원이다.

장애인들의 원활한 산사순례를 위해 후원도 받고 있다. (국민은행 841501-04-027667 보리수아래)02-959-2611 임은호 기자

"3월엔 여행을"…3만원에 템플스테이

문화사업단, 3월 31일까지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 운영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이 3월 7일부터 31일까지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사진〉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년 여행가는 봄 캠페인' 행사와 연계해 템플스테이 참가비를 할인해 주는 이벤트다.

해당 이벤트는 전국 113개 사찰에서 진행되고, 약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1박 2일 템플스테이는 내·외국인 모두 3만원에 체험할 수 있고, 당일형 템플스테이는 외국인에 한해 1만 5000원에 참가할 수 있다.

예약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서 3월 4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다만 모든 할인 혜택은 선착순으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 템플스테이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도 제공한다.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새로움과 변화를 상징하는 봄을 맞아 초록빛 기운이 가득한 봄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일정과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www.templestay.com, www.eng.templestay.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내영 기자

진흥원, 노상충 대표 초청 화요열린강좌

3월 18일 마포 다보원서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3월 18일 오후 7시 서울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노상충 캐럿글로벌 대표를 초청해 3월 화요열린강좌를 개최한다.

'AI시대 경영의 길, 명상에서 찾는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강좌는 현대사회 경영자들이 일상에서 실천하기에 적합한 수행으로서의 명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통찰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노상충 대표는 성균관대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일산 백병원 임상감정 인지기능 연구소에서 뇌파를 이용한 뇌과학 연구를 했다. 지금은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수학 중이다. 새로운 문명의 시기에 직면한 CEO들과 리더들의 의식 증진을 위한 수행 공간인 '센터원'을 설립해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저서로는 〈당근농장 이야기〉 〈일터 영성〉 등이 있다.

한편, 대한불교진흥원의 화요열린강좌는 BBS-TV와 유튜브 '헬로붓다 tv'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